

119. 조선소의 배관 취부작업자에서 발생한 경추 6-7번

추간판탈출증'과 '요추 3-4번, 4-5번 추간판탈출증

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강선건조 또는 수리 업무관련성 낮음

1. 개요: 근로자 남OO는 198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5~6년간 근무하다, 배관관철 직종으로(다기능) 전환하여 파이프, 서포터 설치 및 후렌치 볼팅작업 등 배관 취부 작업을 약 18 년간 하고 있다. 2005년 12월 체인록카 안에 카바(60~70Kg)를 담으려고 들어 올려 밀어서 담는 순간 허리의 통증을 느꼈으며 3개월 뒤인 2006년 3월에 요추 MRI 촬영 후 제 3-4, 4-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.

2.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 근로자 남OO는 OO조선(주)에서 용접직종으로 1982년 4월에 입사하여 5~6년간 근무하다 배관관철 직종으로(다기능) 전환하여 파이프, 서포터 설치 및 후렌치 볼팅작업 등 배관 취부 작업사로 일하고 있다. 업무는 전형적인 비정형작업으로 요추부에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 상당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

3. 의학적 소견: 근로자는 제6-7번간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된 추간공 협착증이 보이는 상태였으며 요추부 MRI상 현저한 요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고, 요추 제4-5번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이며, 우측 신경공(neural foramen)에서 우측 L4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였으며 근 전도에서도 우측 L4 신경근병증이 확진되었다. 사고성 여부의 판단은 현재 어렵다. 그러나, 요추간판탈출증의 양상은 해당 연령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.

4. 결론: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남OO는,

- ① 2006년 8월 경추 MRI로 제6-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었으며, 2006년 8월 요추 MRI와 요추부 근전도 검사상 요추 3-4번, 4-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는데,
- ② 입사이후 1989년 8월과 2005년 12월의 사고력은 현재 요추 추간판탈출증과의 관련성은 판단할 수 없으며, 위 상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정도가 해당 업무 전반 에서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,
- ③ 또한,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이 연령 진행에 따른 퇴행화 이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,

근로자 남OO의 경추 6-7번 추간판탈출증'과 '요추 3-4번, 4-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